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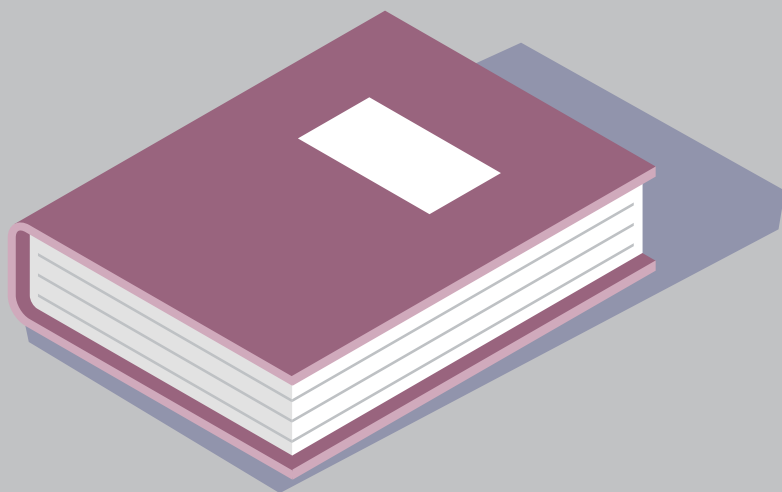
세상을 이해하는 명언, 잠언, 속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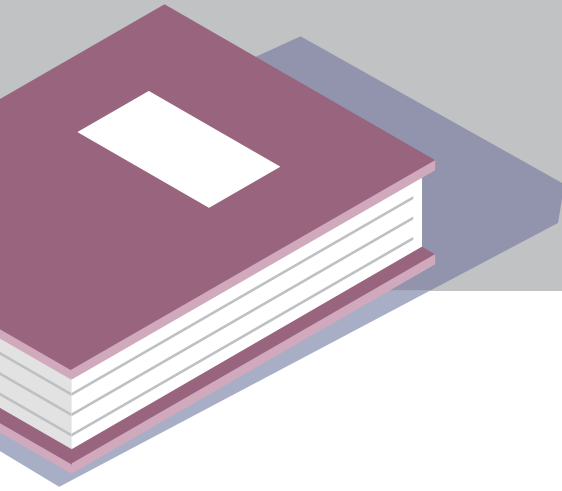
명언



통치에 대한 명언, 잠언, 속언

명언





통치에 대한 명언

-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호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.

<나폴레옹1세, 「금언과 성찰」, 1769~1821>

- 공자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우울한 검술 사범은 없다.

<A.뮌세, 「판타지오」, 1810~1857>

-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친절히 돌보아주어야 한다.

<라퐁텐, 「우화」, 1621~1695>

- 피할 수 없는 것은 끌어안아야 한다.

<셰익스피어, 「원저의 즐거운 아낙네」, 1564~1616>

-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.

<「신약」>

- 천사 흉내를 내려는 자는 동물을 흉내 낸다.

<파스칼, 「팡세」, 1623~1662>

- 먹이되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로 대하는 것이고,
사랑하되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.

<맹자,「맹자」,BC 372~BC 289>

- 작은 일에 충실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실하다.

<「신약」>

- 좋은 나무에 좋은 그늘이다.

<석성금,「전가보」,1658~미상>

- 증오가 지나치게 격렬해지면, 우리를 증오하는 자들보다 아래 놓는다.

<라로슈푸코,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1613~1680>

-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, 모든 재주에는 때가 있다.

<「구약」>

- 현인을 보면 그와 같이 될 것을 생각한다.

<공자,「논어」,BC 551~BC 479>

- 군자의 도는 물처럼 담박하다.

<공자,「중용」,BC 551~BC 479>

- 현자는 지나치게 많은 지혜로 이치를 깨우치려다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.

<에우리피데스,「엘렉트라」,BC 484~BC 406>

- 지혜란 선견지명이다.

<테렌티우스아페르,「형제」,BC 195~ BC 159>

- 왕보다 더 왕족 같아서 안 된다.

<세토브리앙, 「입헌군주제」, 1768~1848>

- 가장 작은 사물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.

<괴테, 「잠언과 성찰」, 1749~1832>

- 어떤 사건에 앞서 어떠한 징조가 있다.

<키케로, 「예언에 관하여」, BC 106~BC 43>

-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모자라는 것 같다.

<노자, 「도덕경」, BC 601~미상>

- 덕이 없는 권위는 존경 없는 떠받들음을 받을 뿐이다.

<샹포르, 「금언과 성찰」, 1741~1794>

- 자신감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.

<호라티우스, 「서한집」, BC 65~BC 8>

-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게 된다.

<괴테, 「파우스트」, 1749~1832>

-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믿는 것은
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탁월한 자리는 큰 사람들은 더욱 크게 만들고, 작은 사람들은 더욱 작게 만든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큰 자리를 맡아 책임을 완수하는 것보다
그에 마땅한 사람으로 보이는 편이 훨씬 쉽다.

<보브나르그, 「성찰과 잠언」, 1715~1747>

- 탁월한 자리는 가파른 바위와 같아서 독수리와 도마뱀만이 닿을 수 있다.

<네케르부인, 「잡문집」, 1739~1794>

- 사람들이 촛대 위에 놓으면서 끄는 불이 있다.

<루이드보날, 「잠언과 성찰」, 1754~1840>

- 이 몸은 손가락 끝까지 왕이다.

<셰익스피어, 「리어왕」, 1564~1616>

- 매력은 시각을 사로잡지만, 미덕은 영혼을 사로잡는다.

<A.포프, 「머리카락을 훔친 자」, 1688~1744>

-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높은 통찰력이 아니라, 정치가의 성격이다.

<볼테르, 「루이 14세의 시대」, 1694~1778>

- 한 사람을 그의 장점으로 판단하지 말고,
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.

<라로슈푸코, 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 1613~1680>

- 사람들의 존경이 돈보다 훨씬 확실한 재산이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사람은 제 뜻대로 사랑받기는 힘들지만, 언제나 존경받을 수는 있다.

<퐁트넬, 「대담집」, 1657~1757>

- 존경은 유명세보다 훨씬 낮고, 인정받는 것이 명성보다 낫다.

<샹포르, 「금언과 성찰」, 1741~1794>

-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들보다 훨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

<테오도르주프루아, 「푸른 노트」, 1796~1842>

- 불인하면서 나라를 얻은 사람은 있었지만, 불인하면서 천하를 얻은 사람은 없었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,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버리면 안 되고,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.

<몽테스키외, 「잡다한 상념」, 1689~1755>

-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여된 품위는 불명예와 마찬가지로지다.

<푸블릴리우스시루스, 「격언집」, BC 85~BC 43>

- 몹시 간한 자에게는 높은 충성심을 기대할 수 없다.

<비용, 1431~1463>

- 복종시키기만 하는 자는 명령할 줄 모른다.

<코르네유, 1606~1684>

- 명예로운 사람에게나 모욕이 있는 것이다.

<윌리엄쿠퍼, 1731~1800>

- 백성을 만족시키면서 위인들을 절망시키지 않는 것, 이것이야말로 통치할 줄 아는 자들의 금언이다.

<마키아벨리, 「군주론」, 1469~1527>

-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, 작은 물고기를 굽는 자를 따라 해야 한다.

<노자,「도덕경」,BC 601~미상>

- 우리는 우리를 칭송하는 이들을 좋아하나, 우리가 칭송하는 이들은 좋아하지 않는다.

<라로슈푸코,「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」,1613~1680>

- 자신이 갖고 있는 빛만큼 빛을 발한다.

<헤이우드,1497~1580>

- 상급자는 하급자가 경쟁하려 들면 격분한다.

<아리스토텔레스,BC 384~BC 322>

- 모두가 2인자라고 하는 자가 1인자의 자격이 있다.

<J.스위프트,1667~1745>

- 사람은 땅바닥에 있는 것을 짓밟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.

<아이스킬로스,「아가멤논」,B.C. 525~B.C. 456>

- 사람들이 잘못을 예상할 수 있는 이는 큰 인물이다.

<「탈무드」>

- 왕이 실성하면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.

<호라티우스, BC 65~BC 8>

- 군중은 무시해도 상관없는 판사와 같다.

<괴테,1749~1832>

- 모두 인간은 폭정에 대항하는 군인이다.

<볼테르, 「소포니스베」, 1694~1778>

- 폭군의 귀만큼 과민한 것도 없다.

<유베날리스, 「풍자시집」, 55~140>

- 국민이 그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믿도록 하면서 그들을 통치하라.

<윌리엄펜, 「고독의 열매」, 1644~1718>

- 국가를 잃게 되는 것은 우유부단함 때문이다.

<볼테르, 「광신 혹은 예언자 마호메트」, 1694~1778>

-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가 있다 해도,
인정을 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없다.

<맹자, 「맹자」, BC 372~BC 289>

- 머리로 사람들을 다스린다. 선한 마음으로 장기를 두지는 않기 때문이다.

<샹포르, 「금언과 성찰」, 1741~1794>

- 왕좌에서 개를 쫓아내면, 개는 설교자 연단에 올라간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왕국의 날카롭고 예리한 무기를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.

<노자, 「도덕경」, BC 601~미상>

- 개는 줄이 풀려도 목줄을 매고 다닌다.

<페르시우스, 34~62>

- 군주의 호의는 공로를 배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로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.

<라브뤼에르, 「성격론」, 1645~1696>

- 정치의 주요 목적은 도시 국가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.

<아리스토텔레스, 「에우데모스 윤리학」, BC 384~BC 322>

- 고리를 훔친 자는 죽고,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.

<장자, BC 369~ BC 289>

- 군주는 배요, 서민은 물이다.

<순자, BC 298~ BC 238>

- 군주는 백성의 근원이다. 근원이 맑으면 흐름이 맑고, 근원이 흐리면 흐름도 흐리다.

<열자, 미상~미상>

- 군주는 그릇과 같고, 백성은 물과 같다.

<한비, 「한비자」, BC 280 ~BC 233>

- 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. 특히 정치적 실책을 한층 더 미워한다.
그것은 기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기 때문이다.

<괴테, 1749~1832>

-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있고,
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불길한 징조가 있다.

<자사, 「중용」, BC 492~ BC 431>

- 옛 일로 지금을 다스림은 시세의 변함을 모르는 것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대간은 충신과 같다.

<여희,1447~1510>

- 대공을 말할 때는 소과를 말하지 않는다.

<반고,「한서」,32~92>

- 마상에서 어찌 천하가 다스려질 것인가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망국의 대부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백성을 가장 존귀히 할 것이며, 사직은 그 다음, 군주는 그 밑으로 가벼이 여겨라.

<맹자,BC 372~BC 289>

-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, 백성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.

<「시경」>

- 법률은 일반 인민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.

<루소,1712~1778>

- 불인하면서 나라를 얻은 자 있으나, 불인하면서도 천하를 얻은 자는 없다.

<맹자,BC 372~BC 289>

- 사람이 많을 때는 하늘을 이긴다.

<사마천,「사기」,BC 145~BC 86>

- 숭고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만큼 존귀한 것이 없다.

<볼테르, 1694~1778>

- 어떠한 경우에도 국법에 의하여 시민은 서로 평화를 보전할 것이다.

<플라톤, 1754~1824>

-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압제자의 입버릇.

<밀턴, 1608~1674>

- 영은 가혹하면 듣지 않고, 금하는 일이 많으면 실행되지 않는다.

<여불위, 「여람」, BC 290~ BC 235>

- 왕자는 사해로써 집을 삼는다.

<범엽, 「후한서」, 398~445>

-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.

<사마천, 「사기」, BC 145~BC 86>

- 필요한 것 앞에 법률은 없다.

<베트만홀베크, 1856~1921>

-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, 밑이 이를 따른다.

<맹자, BC 372~BC 289>

- 인민에게 미움 받는 정치는 영속하지 못한다.

<세네카, BC 4~65>

- 인민의, 인민에 의한, 인민을 위한 정치는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는다.

<링컨,1809~1865>

- 재물은 나라의 생명이다.

<「당서」>

- 적국과 외환이 없으면, 그 나라는 망한다.

<맹자,BC 372~BC 289>

- 정치가로서 위훈을 세우려면 권력에 수반하여 근신을 잃지 말 것이며,
운명에 수반하여 덕행을 잃지 말아야 한다.

<플라톤,1754~1824>

- 정치는 사람에게 있다.

<자사,「중용」,BC 492~ BC 431>

- 정치를 하는 자가 누구에게나 다 잘하려다가는 한이 없다.

<맹자,BC 372~BC 289>

- 제왕은 간신을 좇지 말라.
그렇지 않으면 간신이 행한 나쁜 짓도 나의 소위로 알게 된다.

<플라톤,1754~1824>

- 제왕의 가장 확실한 호위는 병사가 아니며, 돈이 아니며, 양심이다.

<페트라크,1304~1374>

- 죄가 분명치 않은 것은 가볍게 하라. 공이 분명치 않은 것은 무겁게 하라.

<「서경」>

- 중화가 이루어지면 천지가 올바르게 자리 잡으며, 만물이 키워진다.

<자사,「중용」,BC 492~ BC 431>

- 천하와 더불어 즐기고, 천하와 더불어 근심한다.

<맹자,BC 372~BC 289>

- 철학자가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가 철학자인 나라는 행복하다.

<플라톤,1754~1824>

- 하달은 간으로써 하고, 무리를 다스림은 관으로써 하라.

<「시경」>

- 학정은 범보다 사납다.

<「예기」>

- 정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.

<톨스토이,「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」,1828~1910>

-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.

<사마 천,「사기」,BC 145~ BC 86>

- 18년동안 호랑이를 탔으니, 또한 이미 족하다.

<태종,「태종실록」,1367~1422>

-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역사뿐이다.

<연산군,1476~1506>

- 탐관오리의 해로움은 홍수와 맹수보다 심하다.

<철종,1831~1864>

- 말 위에서 얻은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?

<육가,BC 240~BC 170>